

##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창세기를 성경의 못자리라고 말하듯이, 창세기에는 모든 성경의 기초와 시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모르거나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나머지 성경의 연관성과 점진성에 대한 맥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창세기는 1-11 장까지와 12-50 장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등 4 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4 대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한 저자와 기록한 목적과 중심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제 1 차 독자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이 있기까지의 잊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일깨워 주어 자신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에 대해 사람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1-2 장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지음 받을 인간이 살아 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과 교제를 갖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건물만 잘 지어 놓았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듯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며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1:31) 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 **둘째, 인간은 어떻게 보답하였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답하였습니까? 그 내용이 3-11 장까지입니다. 이 평화로운 동산에 죄가 침입하였습니다. 인간이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한 반면 사탄의 달콤한 말을 믿게 되었고 그 말대로 순종하므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호 6: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따먹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믿음이 우선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 홍수 심판 때에는 세상에 가득하였고 홍수 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배은망덕한 보답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었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고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15)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을 <첫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이제 후로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인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 두 사이에는 원수지간과 같은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의 궁극적인 의미는 인류의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역사속으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날 것과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해를 당할 것과 그러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탄의 정복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이 사실을 창세기에서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펼쳐질 구속사에 있어서는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준비와 이를 적극적으로 자지하려는 사탄의 방해역사가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도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뱀의 후손인 가인이 쳐죽인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사탄은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를 파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다른 씨로 주셨다” (창 4:25)고 말씀합니다.

5 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져 10 대 만에 노아가 탄생합니다. 노아의 때에 와서는 두 부류가 혼합될 만큼 죄가 득세하여 여자의 후손들이 세속화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 6:2). 이것이 홍수 심판이 내려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홍수 심판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 (창 6:5)함에 대한 진노일 뿐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날 의로운 씨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셋을 통하여 계승됩니다. 창 11:10 에서 “셋의 후예는 이러하니라”하고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탄생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은 기억해야만 될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첫 복음>으로 주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구체화시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다섯 차례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손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천하만민이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일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고 자손이 번성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므로 성취됩니다만 궁극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 주실 것과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과 그들에게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 기업이 주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창 26:3-4)과 야곱(창 28:13-15)에게로 계승되어 나갑니다. 그 내용이 12-50 장까지의 말씀의 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언약입니다.

창세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 주고 있는가? 첫 복음인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어진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갈 3:8 에 보면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 15:6 에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한 것은 전하여 준 복음을 믿은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 8:56)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창 49:10)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히 7:14)라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를 통해 자기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창조사역을 통해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1-2 장), 타락한 아담에게 첫 복음을 주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3-4 장),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6-9 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10-11 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는 구주되시는 하나님으로, 이삭을 통해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야곱을 택하심으로 주권적인 은혜의 하나님으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을 입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롬 5:12)하신대로 아담도 죽었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창 50:24)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 (히 11:13)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여!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나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창세기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 상고해 봅시다.

1. 창세기는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4 대 사건과 4 대 족장은 누구입니까?
2.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세 가지 언약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까?
4.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보답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